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1-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참된 산 예배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최근 내 삶의 현장(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염려에 빠진 부분은 무엇이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자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The Glory and Hope of the Church as the Bride of Christ

Passage: Genesis 24: 1-9 (ESV)

Date: October 25, 2026

Pastor: Dong Suk Chung

At first glance, Genesis 24 looks like a simple family matter: Abraham sends his oldest, most trusted servant to choose a bride for his son Isaac. But the true spiritual reality embedded within it is a redemptive foreshadow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Church as His bride. The people and events recorded in Scripture are revelations given to each of us living today. In this passage, Abraham represents God the Father, the old servant represents God the Holy Spirit, Isaac represents God the Son, Jesus Christ, and the bride Rebekah represents the church of today.

As Abraham reached an advanced age and was blessed by the Lord in all things, we are also people of faith who are saved not by our own merit or effort, but by God's sovereign calling and grace. All of humanity was born as sinners because of the sin of the first man, Adam. But God wanted to make a fresh start for humanity and sent Jesus Christ in human form as the last Adam.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we have been declared righteous before God and made into new creations in Him. While the Old Testament era was an age of works, the present era is an age of faith where we receive the proclaimed good news of salvation. When people first heard the news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ey accepted the fact that they were now free, whether they felt a sense of freedom or not. The moment the treaty was signed, they were free. Their feelings and thoughts did not change the truth that they were now free. In the same way, true faith is to receive and enjoy God's declaration, "You have no sin; you have been made righteous," just as it is spoken, without doubt. Whether we feel that freedom within us or not, it is the truth.

God's ultimate purpose is not our individual salvation. His primary purpose is to build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e bride of His Son. Just as clay is crafted into sturdy brick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building a house, God grants us new life in Christ so that we may build up the Church, which is the house of God. A brick on its own is useless, no matter how precious it is. A faith that is merely satisfied by one's personal salvation is an incomplete, half-formed faith. The purpose of redemption is fully realized when each believer discovers their exact place and calling in the body of Christ: as one cell that is part of a hand or a foot.

Many Christian communities today have fallen into being mere worldly organizations, driven by envy, judgment and resentment. But the true church must be a holy, living organism in which each member's ego is being thoroughly dealt with at the cross, and Jesus Christ alone reigns as King.

True worship is not merely gathering once a week to sing hymns; it is a daily life where our self-will and worldly thoughts are continuously crucified on the cross. Only when our "old self" dies can Jesus Christ within us come alive to manifest God's living presence. If we remain self-reliant, consumed by worry, and trying to sustain everything on our own strength, the Lord cannot work within us. But when the "old self" dies and we walk in step with the Lord, we experience a life overflowing with hope and joy through Him—who is the source of all wisdom and knowledge—regardless of human knowledge or external circumstances.

Just as Abraham's old servant represents God the Spirit, the Holy Spirit today guides believers into the truth and helps us understand the glory of Jesus Christ and the abundance of His blessings given to us. When Rebekah heard news of the bridegroom Isaac through the servant, she decided at once saying, "I will go", despite her family's hesitation. Likewise, as we continually listen to the Word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ties binding us to the world are severed, and a deep longing for Jesus alone grows within us. When we receive Jesus as our true Bridegroom, even in the midst of the world's troubles, wounds, and failures, we receive a sense of peace and abundan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We did not choose God; God chose u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alling us to be the companion of His Son, the object of His love, and the bride of Jesus Christ. Therefore, let us not be shaken by the demands of the world or the flesh. Day by day, as we put our "old self" to death and follow the Holy Spirit within us, let us march boldly toward the eternal heavenly wedding feast and fully build up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132호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11월 8일 2026년 NASUNGCHURCH.ORG 132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24장 1절 ~ 9절

날짜: 10월 25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24장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 아들 이삭의 신부를 택해 결혼시키는 단순한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예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늙은 종은 성령 하나님을,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부 리브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험을 거친 후 사라가 죽은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뜻하며, 이삭이 신부를 만나는 사건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참된 교회가 탄생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범사에 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로 시작하고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행함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선언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마치 광복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듯, "너희는 죄가 없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내 타락한 생각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로 귀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가는 삶입니다. 내 옛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살아 있어 스스로 염려하고 모든 일을 지탱하려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지만, 내 자아가 죽고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들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흙으로 단단한 벽돌을 빚는 이유가 결국 집을 짓기 위함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어가기 위함입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손이나 발, 혹은 세포와 같이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속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세속적인 조직체로 전락하여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성도 각자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처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 노릇 하시는 거룩하고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듯, 오늘날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한 소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신랑 이삭의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각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하며 따라나섰듯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세상에 얽매였던 줄들이 잘려 나가고 오직 예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상처, 실패 속에서도 예수를 참된 신랑으로 모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넉넉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의 배필이자 사랑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육신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내안의 성령을 따라 영원한 하늘의 혼인 잔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귀국하십니다.
  한국 여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11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org
information@nasungchurch.org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윤성한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최귀순 전도사 (81세)
뇌경색과 경미한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에 편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순옥 집사 (한나선교회)
척추에 실금이 가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이시용 장로 (모세회)
패혈증 후유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암수치도 상승한 상태.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장로 (라스베가스)
직장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병길 형제 (제2남선교회)
낙상으로 무릎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정헌 형제 (제1남선교회)
간암 진단으로 면역치료를 준비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영숙 자매 (제1여선교회)
담낭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문 집사 (모세선교회)
파킨슨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묘자 권사 (모세선교회)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세훈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현숙 권사 딸).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